

“전폭적 지원으로 브랜드파워 키워주길”

2009년 발족, 회원 24명 재배농가 20개소 ... 뉴욕타임즈 ‘세계 10대 건강필수식품’ 선정

‘강소농’이 살길이다 ① 금강산 블루베리연구회

금강산 블루베리 연구회(회장 이종영)는 회원 24명과 재배농가 20개소로 구성됐으며 2009년 발족됐다.

이종영 회장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주)대농은 간성을 해상리에 위치해 5,426㎡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회장은 국내 선두주자이자 고성군 1호로 2004년 미국에서 묘목을 가져와 해상리에 심어 7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베리는 30여종의 묘목이 있으며 고성군은 북부기후에 알맞는 ‘듀크종’이 적합하다고 한다.

“고성군은 금강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강한 햇빛, 영하의 기온과 강한 비, 강한 바람을 지니고 있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최적

의 적합지입니다.” 이회장은 “특히 해상리는 동해의 해풍과 건봉사의 강한 바람 속에서 열매를 맺어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고 탱글탱글하다”고 설명했다.

블루베리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본격적인 수확철이라 요즘이 탱글탱글 영글은 블루베리를 맛볼수 있는 기회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색소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돼 시력증진, 노화현상 감소, 암 예방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뉴욕타임지가 세계 10대 건강 필수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과일이다.

블루베리는 생과일 자체로 먹

어도 좋고 우유, 요구르트 등에 혼합해 갈아 먹거나 사베트, 아이스크림, 주스, 잼, 술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주)대농은 다년간 블루베리를 재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등급의 상품만을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입소문이 퍼져 직접 농장을 찾아와 구매하는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 등 다각적인 판로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종영 회장은 “고성군이 블루베리 농업대학을 열어 매주 교육을 실시해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



이종영 금강산 블루베리연구회 회장.

의 블루베리 단지가 형성돼 고성군하면 블루베리가 연상될 만큼 브랜드 파워가 생겨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블루베리의 1kg가격은 4만원 이고 농장 현지 및 인터넷과 전화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원광연 기자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결의대회 및 정신·환경분야 의식개혁 특강이 열렸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결의대회

간성을 어천3리·죽왕면 삼포리 ... 자율적·자발적 참여 유도

고성군 농정산림과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3층에서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결의대회 및 정신·환경분야 의식개혁 특강을 개최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교육은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음인 간성을 어천3리, 죽왕면 삼포리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김종건 교수(정신분야)와 최정환 교수(환경분야)를 초빙해 이뤄졌다.

정신분야교육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의식개혁 실천방향 등의 내용이 진행됐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농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강연이 이

어졌다. 이에 앞서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를 위한 결의문 낭독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성군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간성을 탐동리와 현내면 배봉리 등 15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됐고, 올해는 간성을 어천3리와 죽왕면 삼포리가 선정됐다.

원광연 기자

평택초농의 종목분석

LS(006260)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반적인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의 증대로 말미암은 불안감이 확산하고, 2000선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감을 뒤로 하고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다가오며 2150선까지 상승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대비하고 준비

된 약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의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요 구간에서 명분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정오영

평택초농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없으며 항상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지금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매매하면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외변수로 인해 종목별 매매가 까다로운 흐름

의 연속이므로 홀딩관점의 매매보다는 마디마다 차익 실현하며 대응해야 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수 후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LS(006260)라는 종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LS그룹의 지주회사로서 LS니코동제련, LS산전, LS전선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LS니코동제련은 국내 유일의 전기동 제련업체로서 동광석 제련과정에서 부가적인 제품과 귀금속 등 금속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LS산전은 전기기기 및 시스템산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의 기반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태양광, 연료전지, LED 등 향후 성장 산업에 기반이 되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LS전선은 중국시장에 진출해 향후 중국의 초고압 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른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LS에 대한 매매 기준은 10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110,000원 전후에서 분할매수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단기 목표치는 전고점 위치인 125,000원 정도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초농)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